

##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현실과 과제

이병기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BK@keri.org)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제기된 동반성장 정책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발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선 2000-2009년 기간의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1-1999년 기간의 그것에 비해 증가한 반면에 대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에 수직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대상으로 사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1-2010년 기간에 위탁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조선산업의 경우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더 높았으며,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화 패턴을 나타내어 위험 공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위탁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기업의 성장과 투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낙수효과가 무용하다는 가설에 근거한 대기업 규제-중소기업 보호중심의 기업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반성장 지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입법화 등과 같은 동반성장 정책은 재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R&D투자 증대와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M&A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기업자율을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제도가 확산되어야 한다.

### 1. 문제의 제기

-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그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고, 그 처방에 있어서도 다양한 견해 대두
  -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제기된 동반성장 정책은 대기업-중소기업의 성과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같은 격차의 배후에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발생되고 있지 않다는 배경을 깔고 있음.<sup>1)</sup>
  - 총선 과정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격차가 대기업에 원인이 있다는 전제 하에 대기업 개혁을 목표로 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대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바 있음.

1) Hirschmann, A. O.,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1958. 낙수효과는 선도부문의 성장의 과실이 후발 부문에게 유입되는 효과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 최근 낙수효과 무용론과 함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 규제-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움직임 현실화<sup>2)</sup>
  -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등 대기업의 부정적 효과 확대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수의 대기업에게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
  -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절실한 상황
- 본고에서는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산업에 있어서 위탁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에 이윤율 격차는 실제로 얼마나 되며, 위탁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중소기업의 투자 및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
  - 낙수효과가 발현되지 않아 중소기업 부문이 장기적으로 위축되고 있는지 등을 실증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토
  - 자동차 및 조선 산업과 같은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산업에서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실증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2. 양극화 논란과 대-중소기업의 성과

### (1) 대-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 정부는 “경제성장 성과의 중소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제한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지속”되었다는 인식 하에 동반성장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시작<sup>3)</sup>
-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최근 양극화 심화현상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주로 수익성의 양극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주 거론된 것 중의 하나가 매출액 영업이익률 지표

2)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의 고질적인 관행을 확실히 잡겠다』, 2012.2.9.;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의 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14』, 2012.3.20.

3)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2010.9.29.

- <표 1>을 보면 1990년 초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차이를 보면, 1991-95년은 3.5%포인트, 1996-2000년은 2.7%포인트, 2001-2005년은 3.1%포인트, 2006-2010년은 1.8%포인트의 차이 발생
-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면 최근 5년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윤율 격차가 가장 작은 기간에 속함.
- 그러나 정부는 2010년 8월 공정사회론을 들고 나오면서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기업정책을 추진

**<표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추이**

(단위: %)

기업규모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대기업 (A)	8.2	7.8	7.7	6.8
중소기업 (B)	4.7	5.2	4.6	4.9
A-B	3.5	2.7	3.1	1.8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연도.

**(2) 중소기업 비중 변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를 검토할 필요
  - <표 2>에 따르면 1991-1999년에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45.9%였으며 2000-2009년에는 48.5%로 전체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이 2.6%포인트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동 기간 중 부가가치 비중 감소
  - 2000-2009년 기간 중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1991-1999년 기간에 비해 낮아 졌지만, 여전히 같은 기간의 대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4.17%에 비해 높은 수준

**<표 2> 제조업의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추이 (%)**

		1991-1999	2000-2009
부가가치 비중	중소기업	45.86	48.46
	대기업	54.14	51.54
부가가치 증가율	중소기업	6.20	4.94
	대기업	4.81	4.17

주: 중소기업은 10인 이상의 고용규모를 대상을 분석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연도.

### 3. 대기업 성장의 협력기업 낙수효과 사례분석

#### (1)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이익률 변화

- 총자산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추이<sup>4)</sup>
  - 자동차산업의 경우, 이익률의 측정치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만 대-중소기업간 큰 이익률 격차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2001-2010년 기간에 위탁대기업이나 전체협력기업 및 중소 협력기업의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거의 비슷한 수준
    -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차이는 약 0.6~0.8%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음.
  - 조선산업의 경우에 협력기업이 위탁 대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영업이익률을 실현
    - 위탁 대기업에 비해 중소 협력기업의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3.7%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위탁 대기업에 비해 협력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표 3>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이익률 변화추이

(단위 : %)

			대기업	전체협력기업	중소협력기업
자동차산업	총자산영업이익률	2001-2005	6.01	6.32	5.74
		2006-2010	4.93	4.77	4.54
		2001-2010	5.37	5.38	5.00
	매출액영업이익률	2001-2005	5.08	4.72	4.26
		2006-2010	4.41	3.72	3.58
		2001-2010	4.69	4.12	3.84
조선산업	총자산영업이익률	2001-2005	2.59	7.36	7.90
		2006-2010	6.05	9.23	9.15
		2001-2010	5.12	8.69	8.79
	매출액영업이익률	2001-2005	3.17	5.87	6.17
		2006-2010	8.68	7.91	7.80
		2001-2010	7.03	7.30	7.30

자료 : 이병기(2012)

-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위탁 대기업은 큰 폭의 이익률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1차 협력기업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이익률 변화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임.

4) 기초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병기, 『대기업 성장의 협력기업 낙수효과 분석: 자동차-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2-03, 2012. 7.

-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1차 협력기업의 이익률은 일본 등 다른 나라의 하도급 기업과 마찬가지로 위탁 대기업에 비해 안정적인 추세
- 협력기업의 이익률이 크게 변동하지 않고 안정적인 양상을 띠는 현상은 위탁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의 위험공유가 현실의 부품·소재 거래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위탁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에 저가 납품조달이나 경기 완충장치로 기능하기 보다는 위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보장과 이윤을 보장하는 장기 거래 시스템의 기능을 갖고 있음.<sup>5)</sup>



자료 : 이병기(2012)

5) 자동차 산업은 일부 완성차 업체를 제외하면 오랜 기간 동안 경영성과 악화를 나타냈다. 최근 완성차 업체의 경영성고가 개선되면서 2008년 이후 협력업체의 경영성고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한편, 2009년 국내 대형조선사의 이익률은 높아진 반면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2009년 조선산업은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심각한 부실상태에 빠지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하여졌고, 이에 따라 조선산업 내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 (3) 대기업과 1차 협력 기업간 낙수효과 분석결과

- 최근 대기업성장 낙수효과 분석결과<sup>6)</sup>에 의하면,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의 성장은 당해기업의 1차 협력기업의 매출성장률 및 투자율에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
  -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나 조선산업에 있어서나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기업의 매출증가나 투자율 증가에 기여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제외하고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표본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여전히 대기업의 성장은 중소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됨.
  - 대기업의 성장의 현재뿐만 아니라 전기의 성장률을 고려하여 추정하여도 전기의 대기업 성장률은 현재의 협력 중소기업의 투자에 양의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분석됨.

## 4. 정책대안

- 지금까지 논의 결과에 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논쟁은 현실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
  -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기간별로 차이가 나지만 최근 가장 격차가 적은 상태
  -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분석결과, 2001-2010년 기간 중 위탁대기업의 이익률과 협력 중소기업의 이윤율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선산업의 경우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높은 상태
  - 조립산업을 대표하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에 있어서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 및 투자율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가설에 근거한 대기업규제-중소기업 보호 중심의 기업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반성장지수 산정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같은 비대칭적인 기업정책이 지속·확대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하도급법은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거래 관계의 본질인 계약, 즉 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필요

6) 이병기(2012) 참조.

-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에 거래관계의 크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
  -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신설 등 정책 노력이 필요
  - 독일과 일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하며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그에 걸맞는 기술력을 갖추었기 때문임.
- M&A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영세성 극복과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
  - 부실 중소기업의 비중증가는 당해 산업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
  -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그에 따른 격심한 경쟁이 중소기업간 이익률의 격차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2~3차 벤더로 갈수록 납품기업 간 치열한 가격경쟁이 납품단가 인하를 유발
  - 중소기업의 낮은 납품단가 문제를 개선하고 납품기업 간의 가격경쟁을 완화하려면 중소기업의 규모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M&A활성화 및 기술집약적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추진 필요
- 기업자율을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도의 확산
  -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과공유제도가 민간 부문에서 쉽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수·위탁 기업 간 신뢰구축 및 중소·중견기업과 해외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인센티브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임.